

불교카툰의 눈부신 활약... 불자 영화 감독들의 선전

미술에서 공연·영화까지 한눈에 보는 2014년 '문화 결산'

2014년 불교문화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2014년 불교계는 여러 스님이 주축이 된 불교카툰이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김한민 감독이 만든 영화 '명량'이 역대 최대 관객 기록을 세우는 등 불자 감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선전했던 한 해다. 또한 젊은 불자들이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중흥무진 활약하는 점도 눈에 띄었고 미항사 패불전, 간송미술전, 리움미술관 10주년 기념전 등 도심에서 불교미술의 진수를 엿보는 기회도 마려뒀다.

카툰 불교와 만나다

올해 붓다아트페스티벌에서는 불교만화 초대기획전을 마련 불교카툰을 선보였다. 불교의 사후 세계를 소재로 다룬 <신과 함께>의 저자 주호민 작가를 비롯해 여러 스님, 배종훈, 용정운, 양경수 작가 등이 참여해 불교 카툰의 진수를 보여줬다. 이후 여러 스님이 주축이 되어 '만만한 뉴스'라는 불교 웹툰 뉴스가 창간되었고 불교 카툰은 모바일상에서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만만한 뉴스는 오프라인상에서 꾸준한 전시를 열었고 팬들을 위해 템플스테이도 개최하는 등 불교카툰을 알리는 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불교방송은 용정운 작가가 디자인한 보리를 마스코트로 선정하기도 했다.

불교문화 대중 속으로

불교문화는 근엄하고 딱딱하고 고루하

다고는 편견을 깬 전시와 공연들이 주목된다.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불교음악페스티벌'에서 동서양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힙합&팝핀과 오케스트라 'YO! 난다'는 난다의 수행과정을 춤과 오케스트라의 융합으로 보여줘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미술관 대신 병원의 환우들을 찾았다. 이들은 환우와 그 가족들이 쓴 소원지를 활용해 탑을 쌓아 희망을 전해 주고자 했다.

불자 영화감독들의 선전

올해는 불자 영화감독들의 선전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다. 올해를 극장가를 강타한 '명량'은 불자로 알려진 김한민 감독이 연출을 맡아 1,136만이라는 역대 최대 관객을 기록했다. 특히, 김 감독은 명량에서

임진왜란 당시 의승들의 활약을 인상적으로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최근 100만 관객을 넘겨며 다양성 영화의 신기록을 세워가고 있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은 대불련 출신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밖에도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이자 동국대 한국음악과 박사진 교수의 아들인 박규택 감독의 데뷔작 '타일'이 개봉했으며 다큐 '길 위에서'로 유명한 이창재 감독의 신작 '목숨'도 관객들을 찾아갔다.

도심에서 만나는 불교미술의 향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형 미술 전시에서 불교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한 해다. 미항사 패불 모사도가 도심으로 나온 미항사 패불전은 전시 기간 내내 예뻐드리고 문화 공연을 마련하는 등 이색 전시로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간송 미술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간송문화 2부: '보화각'에서는 재미명동삼존불입상, 금동여래입상 등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미술관 리움의 '개관 10주년 기념전 고향'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상들은 물론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국보 196호)' 등도 공개됐다. 이밖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은 신라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보원사 철불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다 관객을 기록한 김한민 감독의 '명량'



붓다아트페스티벌은 만화초대전으로 주목 받았다.



도심을 찾은 '미항사 패불전' 예뻐 장면



힙합이 가미된 니르바나의 불교음악페스티벌



전문문화콘텐츠 기업 마인드디자인 직원들

이는 2013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특별전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문화콘텐츠 개발 나선 청년 불자들이

30대 초중반 불자 문화 사업가들의 활약도 주목된다. 이들은 연기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문화트

렌드로 상상과 공존의 문화를 우리 사회에 전하고 있다.

수행공동체 정신을 기업 문화에 접목한 전문문화콘텐츠기업 마인드디자인 김민지 대표, 현수막 패션가방 등을 재활용한 터치포크 박미현 대표, 재능과 물질을 나누며 일자라도 창출하는 오픈카페 조정훈 매니

저, 불보살 캐릭터를 친숙하게 표현한 부다 아티스트 정기란 대표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은 불심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지향적 기업 모델 제시, 전통 문화의 현대화 등으로 기업을 이끌며 상상과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고요한 명상의 순간 렌즈에 포착

오철만 작가 사진전 '앙코르와트'...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오철만 작가가 12월 29일까지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앙코르와트전을 연다.

"언제나 무엇 앞에 서서 그것들의 표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사진가의 숙명이지만 나는 그 안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고 싶었다. 그들의 심장소리를 듣기 위해 느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머물러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극한 고요를 성취하는 것이었기에 침묵을 드

리우며 걷는 수밖에 없었다. 조각들이 느끼게 움직이고 나무들이 부드럽게 춤추기를 기다리며..." 불자 사진작가 오철만 씨는 자신의 작업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오랜 시간 바라보고 대화하며 그 찰나를 카메라에 포착하면 그것은 또다른 명상이 된다. '워킹 인

터 사일런스, 앙코르와트' (WALKING IN THE SILENCE _ ANGKORWAT) 전이 가나아트스페이스 1층에서 12월 14~29일 열린다.

앙코르와트와 주변 사원들의 사진 35점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오랜 시간 역사의 장소와 대화하면서 담아낸 작가의 내면이 작품 속에 실려 있다. 한 곳의 사진을 찍기 위해 앙코르와트 사원과 주변의 도시를 수십차례 찾으며 명상했다는 작가는 천상의 여신 압사라, 태양의 빛 비쭈누 등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은 앙코르와트의 유물들을 작가의 시선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풍경도 사람도 또 형상도 그 어떤 것에도 연민하거나 도취되지 않는다. 경계의 선상에서 서서 다만 바라볼 뿐이다. 생각도 감정도 떠나버린 그 자리 오로지 지금이 순간을 담아 대중들을 찾아간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침묵이며 지금 여기 머물며 역사의 현장을 현재로 담아내는 앙코르와트를 만나러 떠나보자. (02)734-1333

정혜숙 기자

경기소리꾼 범패음악을 만나다

노경미, 불교음악 '깨침의 소리' 발매

노경미(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씨가 불교음악 '깨침의 소리'를 발매했다. 음반에는 북청계,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 향수나열, 그리고 '사다라니바라' 등 호소리로 부른 범패음악이 실려 있다.

노 씨의 범패는 종교적인 원숙미, 불교적 신비감은 물론, 수십년 이상 지켜온 경기소리꾼만이 지닌 특유의 시김새에서 나오는 음악적 정갈함과 단아함이 조화를 이룬다.

그는 민요나 잡가와 달리 불교음악 연주만큼 최고의 기량을 가진 연주자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원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연주자들의 소리에 그녀의 목소리를 태울 때 묘음(妙音)이 완성되고 그것이 사비(婆娑)의 대중들을 움직일 수 있다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음반 작업에서도 이같은 음악 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대금과 피리는 대금산조 인간문화재인 이생강 명인과 그



노경미의 '깨침의 소리' 음반 표지

의 아들이자 대금산조 전수교육조교인 이광훈이, 북과 태징은 중앙승가대 교수가 자 생암사 주지인 성마 스님이 각각 연주했다. 또한, 장고 및 팽과리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휘몰이집가 인간문화재인 박상옥 명창이 반주했다. 이 밖에도 태평소에 김필홍, 장고에 이관웅, 가야금 오주영, 해금 신현석 등 중견급 명인들이 참여했다.

정혜숙 기자

마하연 송년음악회

불교실내악단 마하연이 12월 22일 문화공간 숲도에서 송년음악회 '소박한 선물'을 열었다. 마하연은 이번 음악회에서 발렌시아나, 셀리가든, 소박한 선물, 상령산 풀이(대금독주-신주희), 랫잇비, 들꽃이야기, 코끼리는 내 친구, 침밀밀, 강강수타령, 아리랑 등의 곡을 선보였다.

출연자로는 해금 성의신, 대금 유기준, 소금 신주희, 가야금 김희진, 피리 박진형, 타악 김혜진, 건반 최은정, 노래 김강민과 이연수 등이 출연하며 구세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마하연 성의신 단장은 "연말을 맞아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음악으로 연말을 마무리하시고 2015년 희망찬 새해를 맞길 바란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마하연은 KBS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악 실내악단이다.

정혜숙 기자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